

오픈캠퍼스 미팅으로 부산시장을 만나다

대학, 기업, 학생들과 함께 지·산·학 발전 논의



▶ 오픈캠퍼스 미팅 현장

지난달 24일, 우리 대학의 뉴미디어관 스튜디오에서 '오픈캠퍼스 미팅' 행사를 열었다.

'오픈캠퍼스 미팅'이란,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부산의 대학에 방문해 대학, 기업, 학생과 대학별 특성화 분야에 대한 지·산·학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된 토론행사다.

행사는 '문화콘텐츠 도시 부산을 위한 지·산·학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본 행사 전, ▲홍보영상 시청 ▲성과물 관람 ▲소통 시간 ▲교내 투어를 마치고 본 행사가 시작됐다.

이후 진행된 본 행사는 ▲행사 안내 및 참가자 소개 ▲시장님 인사 말씀 ▲총장님 인사 말씀 ▲토론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 ▲우리 대학의 장재국 총장 ▲KNN 이오상 사장 ▲NHN 클라우드사업본부 백도민 본부장 ▲LG헬

로비전 김현정 부산본부 총국장과 우리 대학의 ▲이준혁 학생(영상애니메이션학과·4, 디지털콘텐츠학부 학생대표) ▲이재환 학생(게임학과·4, 게임학과 학회장) ▲조수연 학생(광고홍보학과·4, 동서대신문사 편집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전략 ▲영상 산업 발전 계획 ▲지역 체널과의 상생 협력 방안 ▲문화콘텐츠 신산업 기업과 인프라 구축 ▲일자리 확충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토론을 펼쳤다.

NHN 클라우드사업본부의 백도민 본부장은 "동서대학교는 다양한 학과들이 영상, 지역 콘텐츠, 교육, 문화 예술 등의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고 있는 대학으로 유명하다"라며, "이러한 콘텐츠를 안정적인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KNN 이오상 사장은 영상 산업의 빠른 성장과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학의 스튜디오 공간을 비추업 프로젝트 공간으로 리뉴얼 할 때 새로운 제작

공간을 산학협력에 활용한다면, 요즘과 같은 코로나 이후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가상 공간에서의 촬영 및 제작이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LG헬로비전 김현정 부산본부 총국장은 우리 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부산FM'이라는 공동제작 프로그램 제작 수업을 개설하고 함께 진행했다며 우리 대학과 특별한 인연에 대해 말했다. 학생들이 실제 방송 제작에 대한 경험과 LG헬로비전의 담당 PD가 전체적인 멘토링과 종편작업을 서포팅한 것을 지역 체널에 송출하며 부산의 숨은 이야기를 풀어내고, 현재 우리 대학에서 송출 중인 인터넷 방송국 모카(MOCA)도 지역 콘텐츠를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역대학의 학생들과 전통시장 상인을 매칭해 마케팅에서부터 커머스방송까지 연계할 수 있는 모델링을 협의하고 있다"라며, "지역 체널의 존재 자체가 참여형, 착한 커머스, 선한 영향력 확산 등 지역과 함께 상생을 통한

역할을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 대학의 학생들은 부산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영상, 애니메이션, XR 등의 콘텐츠 신산업 관련 기업과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그리고 교외현장실습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에 박형준 시장은 "동서대학교는 디자인, 디지털콘텐츠, 영화제작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학교"라며, "문화콘텐츠 분야에 강점이 있는 동서대를 비롯한 기업, 기관들과의 지·산·학 협력을 통해 부산이 문화콘텐츠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취업 이후 졸업 강조한 지·산·학 협력을 IT나 이공계열뿐만 아니라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제작, 영화 영상 제작 기반을 지원하는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도 확대해 지역 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장재국 총장은 "동서대학교는 1992년 개교 이래 영화, 영상, 디자인, IT,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 아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대학과 부산시가 힘을 합쳐 벤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벤처 생태계를 치밀하게 구축해, 우리 부산의 젊은이들과 세계 각국에서 온 우수한 젊은이들이 한데 어울려 부산이 아시아의 콘텐츠 벤처의 허브가 되면 좋겠다. 앞으로도 부산시가 문화콘텐츠 도시 부산을 위해 지·산·학협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미래 분야인 콘텐츠 분야가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전폭적인 뒷받침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픈캠퍼스 미팅에서 방송영상학과 학생들이 촬영, 음향 등 현장에 직접 참여했다. 또한, 미팅이 끝난 후 기념사진을 찍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 됐다. 토론에 참가한 학생들은 박형준 시장과 장재국 총장에게 사인과 사진을 요청하고 이에 흔쾌히 받아주며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조수연 기자
noeyusohc@gmail.com

미래 문화콘텐츠, 우리 대학에서 만든다

SW융합연계전공 설명회에서 긍정적 반응 쏟아져



▶ 2022년 SW융합연계전공 설명회

지난달 23일, 우리 대학의 소향아트홀에서 AI심화트랙(AI공학전공, 빅데이터전공)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소프트웨어융합대학에 소속된 재학생 약 130여 명과 ▲SW중심대학사업단장인 문미경 교수 ▲SW중심대학사업단 부단장 김동현 교수 ▲AI심화트랙 책임교수 김선용 교수와 AI심화트랙 강의를 운영하는 ▲박승민 교수 ▲한창희 교수 ▲이상걸 교수 ▲최봉준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존의 SW융합연계전공인 ▲AI콘텐츠 ▲사이버 경찰보안 ▲인공지능로봇 ▲AI경험디자인과 더불어 올해 신설된 영어·일본어·중국어SW융합연계전공과 XR콘텐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AI콘텐츠 과정은 우리 대학의 특성화 분야 중 하나인 영화, 뮤지컬 등을 문화 콘텐츠에 AI를 접목해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준다. 그 예로 지난해 11월, AI콘텐츠 전공 학생이 실제와 가장 배우를 동시에 캐스팅한 '혼합현실(MR) 메타버스 뮤지컬'을 공연해 호평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사이버경찰보안 과정은 SW중심학과인 ▲SW학과 ▲정보보안학과 ▲게임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에서 개별 전공과, AI공학과 빅데이터를 다루는 'AI심화트랙'을 운영 중이다. AI전공 SW 융합인재를 길러내는 2개의 AI심화트랙은 우리 대학 SW융합교육의 지향점을 알 수 있는 교육 과정이다. 5개의 SW중심학과 학생 200명 모두 기본 전공과 15개 이상 AI·빅데이터 과목을 이수해 AI·빅데이터 부전공 및 복수전공 학위를 받게 된다.

한편, AI심화트랙 운영 성과는 지난해 정부 지원 학부생 연구프로그램(URP) 선정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 AI·빅데이터 분야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라고 밝혔으며, 69.9%의 학생이 '3학년 진학 시, AI심화트랙에 진입할 예정이거나 긍정

적으로 고민 중이다'라고 답했다. 본 설명회를 통해 SW중심대학사업단장 문미경 교수는 학생들의 AI심화트랙 진입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심화교육 진행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대학과 더불어 우리 대학의 SW중심대학사업단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영상콘텐츠와 정보통신기술 전문교육을 목표로, 문화콘텐츠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소프트웨어융합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SW융합대학은 SW융합교육 핵심 인프라이자, SW중심대학사업의 교육부본 중심 거점이다. 5개 SW중심학과인 ▲SW학과 ▲정보보안학과 ▲게임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에서 개별 전공과, AI공학과 빅데이터를 다루는 'AI심화트랙'을 운영 중이다. AI전공 SW 융합인재를 길러내는 2개의 AI심화트랙은 우리 대학 SW융합교육의 지향점을 알 수 있는 교육 과정이다. 5개의 SW중심학과 학생 200명 모두 기본 전공과 15개 이상 AI·빅데이터 과목을 이수해 AI·빅데이터 부전공 및 복수전공 학위를 받게 된다.

한편, AI심화트랙 운영 성과는 지난해 정부 지원 학부생 연구프로그램(URP) 선정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 AI·빅데이터 분야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라고 밝혔으며, 69.9%의 학생이 '3학년 진학 시, AI심화트랙에 진입할 예정이거나 긍정

조수연 기자
noeyusohc@gmail.com

해외 취업을 위한 80명의 인재 모집!

2022 K-Move스쿨 전국 4년제 대학 최대 규모 선정



▶ 우리 대학 전경

우리 대학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2 해외취업연수사업 K-Move스쿨' 5개 과정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작년에 이어 전국 4년제 대학 중 최대 규모의 K-Move스쿨을 운영하게 됐다.

우리 대학은 올해에 선정된 과정 5개 과정 중 4개 과정이 우수과정으로 승인받았다. 미국 패션스페셜리스트, 그래픽디자이너, 무역물류프린터, IT융합엔지니어 등 우수과정 4개 그리고 일본 IT엔지니어 일반과정 1개를 포함한 총 5개 과정이다. 각 과정별로 ▲패션스페셜리스트 15명 ▲그래픽디자이너 20명 ▲무역물류프린터

어 20명 ▲IT융합엔지니어 10명 ▲IT엔지니어 15명으로 총 80명을 모집한다.

K-Move스쿨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고 우리 대학에서 직접 운영하는 청년 해외진출 지원사업이다. 연수 과정을 통해 직무 및 어학능력 등을 향상시켜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청년들에게 성공적으로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로부터 교육·운영과정을 위탁받아 실시되는 해외취업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우리 대학은 전국 대학 최초로 K-Move스쿨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현재까지 10년 연속 선정·운영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대학일자리센터(학생취업지

원처)에서는 3월 21일부터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K-Move스쿨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 중에 있다. K-Move스쿨에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교육비 전액 ▲교재비 ▲시험응시료 ▲해외 취업 알선 ▲비자수수비(일부) 등의 지원이 주어지고, 추가 혜택으로 ▲해외취업정착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연수 과정과 관련된 전공의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가능하다. 패션스페셜리스트는 ▲패션디자인학을 주요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그래픽디자이너는 ▲디자인대학을, 무역물류프린터

어는 ▲국제 ▲경영 ▲영어 ▲DIS ▲광고 홍보를 주요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IT융합엔지니어와 IT엔지니어는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를 주요 대상으로 모집한다.

이들은 5월 16일부터 내년 2월까지 직무·어학·필수·소양교육을 받고 미국, 일본의 현지기업에 취업한다.

지원 방법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첨부파일을 확인하고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와 국가별 추가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대학일자리센터(학생취업지원처) 홈페이지에서 K-Move를 통해 해외로 취업할 졸업생의 후기와 K-Move 과정별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대학은 2016년에 청년 해외진출분야 국무총리상 수상, 2019년에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에서 해외취업분야 한국고용정보원장상을 수상, 2021년에 청년 해외진출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해외취업 운영기관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등급(A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저학년부터 해외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취업로드맵을 구축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송강영 학생취업지원처장은 "코로나19로 해외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10년 연속 K-Move스쿨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우리 대학의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noeyusohc@gmail.com

차별화 된 교육의 성과를 인정받다

2021년 전공교육과정 인증패 수여



▶ 전공교육과정 인증패 기념촬영

지난달 22일, 우리 대학에서 '2021년 전공교육과정 자체인증제'에서 2단계 운영인증을 획득한 경찰행정학과와 2단계와 3단계 성과인증을 획득한 호텔경영학과가 인증패를 수여했다.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는 2019년도부터 추진해온 인증제도로, 역량기반 교육과정 인증모델에 기반한 인증제도로서 전공교육과정의 구성, 운영, 성과의 3단계 인증으로 운영된다.

자체인증제 시행을 통해 우리 대학의 전공교육과정 개발과정과 운영절차가 표준화되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2019년 26개 전공과 1단계 인증을 획득했으며, 2020년에는 3개 융합 연계전공이 1단계 인증, 5개 전공이 2단계 인증을 획득했다.

2021년에는 16개 전공과 5개 융합연계전공이 1단계 인증, 경찰행정학과와 호텔경

영학과가 2단계 인증을 받았다. 호텔경영학과는 3단계 성과인증 또한 획득했다. 3단계 성과인증은 호텔경영학과가 처음이다. 3단계 교육과정 성과인증은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운영결과 분석, 성과 평가, 교과 및 비교과 우수사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에게는 학과평가와 교원업적평가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우선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 대학의 장재국 총장은 "역량기반 전공교육과정 자체인증제는 교육수요자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해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환류하는 표준화된 모델을 정립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라며 "이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noeyusohc@gmail.com

창업지원단, '창업기업 네트워킹 데이'

동서대-창업기업 간 'DSU 창업기업협의회' 발족



▶ 창업기업 네트워킹 데이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이 '창업기업 네트워킹 데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창업기업 네트워킹 데이'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선정기업과 졸업기업, 창업지원단 협력기업 등 30여 사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웨스턴존호텔에서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보유한 대학 및 기관을 통해 고급기술 및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시제품제작과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에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초청강연자로 나선 스타피쉬Lab 박은빈 대표는 정부지원사업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전달했다. 우리 대학의 협력 기업인 코아콘 장의형 대표와 리눅스 흥성규 대표는 투자유치 노하우와 정부지원사업 노하우에 대해 아낌없이 비법을 전수했다. 이미 우리 대학은 상반기 1차 모집에서 전국 190개 기업 중 19개 기업을 선정해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은 'DSU창업기업협의회'를 설립해 향후 산학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다짐했다. 협의회는 초대 회장을 맡고브릿지 영주호 대표가 위촉됐다. 협회장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통해 선정기업들이 큰 성장을 이뤄냈다. DSU 창업기업협의회를 통해 동서대학교와의 산학연계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도은 창업지원단장은 "우리 학교 창업지원단은 창단 이래 다양한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의 혁신발전을 지원했다. 이번 협의회 구축으로 '교육', '지원', '투자'라는 연계 협력을 통해 초기창업기업의 더 큰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 우리 학교의 전주기 창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유망 창업자의 성공창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육성에 힘쓰겠다"라며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언택트 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의 창

업 활성화 및 성장지원 거점 역할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창업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우리 학교는 2020년부터 3년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3년간 약 75억)에 선정됐으며, 또한 실험실 창업선도대학 사업(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년간 약 30억)과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중소벤처기업부, 5년간 약 8억)에 선정돼 창업교육의 성과를 실제 창업으로 연결하는 창업지원 플랫폼을 완성했다. 그리고 2021년까지 120여 개의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했다. 한편, 우리 학교 창업지원단은 2월 28일부터 '2022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이라면 개인/법인 모두 지원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주관기관으로 '동서대학교'를 선택하면 된다. 최혜미 기자 apfhszlk1542@gmail.com

글로벌영어프로그램 1년 과정 '새로운 도약'

영어집중 교육 받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



▶ 3월 2일 운동장에 모두 모여 입학식 진행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영어 및 전공지식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신입생들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집중적인 영어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동서글로벌영어프로그램(Dongseo Global English Program)이다. 2022학번 신입생 지원자 중, 31명이 2022학년도 동서글로벌영어프로그램 참가자로 최종 선발돼 3월 2일 입학식을 하고 본격적인 영어 집중 교육을 듣는다. 특히 이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영어뿐만 아니라 전공지식도 쌓을 수 있도록 학부기초(전공)도 최대 3과목(학점)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동서글로벌영어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은 학기당 9학점씩 1년 동안 총 18학점을 취득한다. 해외 대학에서 유학하는 것만큼의 영어집중 교육을 받는 것이다. 주당 수업 시간은 9시간으로, ▲영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말씀 ▲어휘 ▲문법 ▲프레젠테이션 스킬 등을 배운다. 이번 연도에는 17개의 다양한 전공에서 선발됐다. 참가 학생들은 "동서글로벌영어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길세은(디자인학부): "저는 동서글로벌영어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디자인학부 길세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 영어 실력을 키우고 싶고, 자발적인 행동으로 한 활동을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개강 날 입학식에 참여하여 프로그램 친구들과 처음 만나고 학교 탐방을 했었는데, 교수님과 친구들과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어인 교수님을 모두 성격도 좋으시고 친근하게 다가가 주셔서 수업하면서도 이해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프로그램에서의 활동이 기대되고,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여 친구들과 멋진 추억을 만들고, 더불어 영어 실력도 키우고 싶습니다!" *최지혜(연기과): "교수님과의 첫 수업, 첫 대면, 그리고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라 많이 떨렸지만,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되는 학교 투어에서부터 농담으로 학생들의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해주시는 모습에 조금 안심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라고 해서 많이 긴장했지만, 질문과 농담을 섞어 진행되는 수업으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파악하면서 진행해 주셔서 수업에 참여하기 수월했습니다." *전국(웹툰학과): "우선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기대했던 것들을 거의 완벽하게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캠퍼스를 소개시켜 주며 학생들과 오더를 진행한 교수님들은 친절하며 부드러운 모습이었고,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시간마다 느꼈던 딱딱함과 지루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비대면 피피티 수업을 지루하지 않게 풀어나가며 학생 한명 한명 놓치지 않고 서로 어울릴 수 있게 짜여진 수업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영어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보람있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최혜미 기자 apfhszlk1542@gmail.com

코로나19 확진 유학생에 격리물품 전달

총학생회 사랑의 응원키트 나눔



▶ DSU 응원키트 준비 과정

제29대 총학생회에서 코로나19 확진 외국인 유학생에게 격리물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우리 대학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부와 뜻깊은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업해 3종(인도면, 차도면, 후면)의 버스 외부 광고와 부산 시내버스 FAQ 카드뉴스 2종을 제작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 외국인 유학생

에게 격리물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제29대 바람 총학생회 임원 중 한 명인 김하용 학생이 대표로 소감을 밝혔다. "저희 바람 총학생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해열진통제, 영양제, 꿀, 핫반, 과자 등 격리에 필요한 생필품으로 구성된 'DSU 응원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국내에 가족이 함께 거주하지 않기도 했고 낯선 나라에 와서 자기격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이를 위해 저희 총학생회에서는 유학생들에게 어려움을 덜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격리 중인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들을 포장해 외국인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학생회끼리 모여 생필품을 포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다 하고 유학생들에게 전달된 것을 보니 값진 경험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타국에서 와서 힘들어 하는 유학생들까지 포함해 서로를 위로하고 우리 대학의 이념인 진리, 창조,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봉사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서 뿌듯했습니다. 힘들었던 점보다는 아쉬웠던 점으로,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직접 준비한 물품들을 얼굴을 보며 전달해 주면서 격려와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메시지와 구호 물품만 전달하게 돼 아쉬웠습니다. 코로나도 드디어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면 언젠간 어려운 상황과 걱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 이런 격리물품 행사보다는 마스크를 벗고 웃는 얼굴로 축제와 체육대회 등 더 즐거운 행사로 얼굴을 맞이하길 바라겠습니다!" 최혜미 기자 apfhszlk1542@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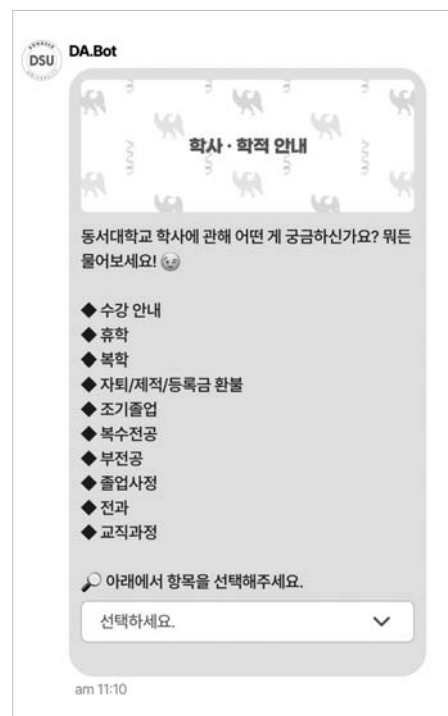
동서대학교 학사 챗봇 구축!

챗봇명: 다봇(DA.Bot)



▶ 다봇(DA.Bot)

지난해 9월, 2020학년도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학사관리 시스템 이용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학사 챗봇 구축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11월, 우리 대학 학사 챗봇 구축을 위해 관련 업체에 외주를 맡겼다. 그 결과로 지난달 우리 대학 학사 챗봇 베타 테스트 후 정식으로 오픈했다. '챗봇'이란 기업용 메시지에 채팅하듯,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사람과 대화하듯이 해답을 주는 '대화형 메신저'를 말한다. 페이스북의 '페이스북 메신저', 텐센트의 '위챗', 키의 '봇쇼', 슬랙사의 '슬랙', 네이버스모바일의 '문앤', 이스트소프트의 '팁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인공지능형 챗봇은 복잡한 질문에도 응



답할 수 있고 자기학습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용자의 입력 단어를 의도치 않게 행동해 개인정보 유출, 피싱, 해킹 같은 보안 위협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축 목적은 선진화된 챗봇 시스템 도입으로 선진적 교육 환경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학사 상담 등의 정보 서비스 강화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학생 맞춤형 학사정보 탐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챗봇의 이름은 '다봇(DA.Bot)'이다. 다봇에 대해 설명하자면 첫 번째, 시스템 설계 친화적인 화면 및 메뉴 구성으로 시나리오별 스토리보드 화면 설계하고 모바일 중심 사용자 급증하는 환경에 따라 다양한 기기에 제약받지 않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접목한 UI를 설계한다. 두 번째, 수강신청과 수업 안내 및 학적



관련 학사 정보를 제공하고 융합연계전공 등 학과별 학과 소개, 교수 소개, 장학제도, 교과과정, 취업안내 등 학과 안내 정보를 제공한다. 세 번째, 대학교 소개와 홍보, 장학제도, 기숙사 이용 등 대학생들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MYDEX 홈페이지 연동할 수 있는 링크 기능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연동할 수 있는 링크 기능을 제공한다. 다봇을 통해 얻는 기대효과는 선진화 된 인공지능 챗봇 시스템 도입으로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고 실시간 인공지능 민원 상담 서비스 구축으로 행정지원 절감 및 학생만족도를 강화할 수 있다. 최혜미 기자 apfhszlk1542@gmail.com

전원 합격의 영광!

제62회 간호사 국가고시 100% 합격



▶간호 실습 장면



한국보건직업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한 2022년 제62회 간호사 국가고시에 우리 대학 간호학과 시험 응시자 전원이 합격했다.

간호사 국가시험이란 간호사로서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시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성인 간호학 ▲모성 간호학 ▲아동 간호학 ▲지역사회 간호학 ▲정신 간호학 ▲간호 관리학 ▲기본 간호학 ▲보건약관계법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국가고시에는 전국에서 24,175명이 응시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며 국가고시 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치르게 된 시험이었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얻은 '전원 합격'이라는 영광이기에 더 값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간호학과 교수들의 세심한 지도 아래 학생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다.

우리 대학의 간호학과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 다양한 전공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우수한 교수진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최신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주

도적이고 창의적인 전문직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졸업생들은 간호학과 10기 졸업생으로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경희의료원 ▲인제대 백병원 ▲부산대병원 등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취업했다.

간호학과 관계자는 "높은 합격률의 비결은 우수한 교수진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및 최신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전문직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한 것"이라며 "맞춤형 학습과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간호사를 키워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은 간호 인재 양성을 위해 시뮬레이션 센터, 다양한 강의 시설 및 장비 등 여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 ▲부산대병원 ▲인제대 백병원 ▲고신대 북음병원 등 대학병원부터 ▲부산성모병원 ▲미래로병원 ▲동래병원과 같은 종합병원, ▲금정구 ▲사상구 ▲북구 보건소와 ▲사회복지관 ▲정신건강증진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광역시지부까지 다양한 곳에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 나이팅게일, 수화, 병원 D-ECHO(병원 영어회화), RCY, 치매 동아리(어

깨동무), 나도담 등 봉사 정신과 배움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한 학과 동아리 역시 우리 대학 간호학과 자랑거리다.

19년부터 동남권에서 유일하게 대학에서 대한심폐소생협회의 BLS(기본소생술, Basic Life Support) 센터와 KALS(한국형 전문 심장소생술, Korean Advanced Life Support) 센터를 인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우수성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또 작년 11월 개소한 동서 시뮬레이션 센터는 학생들의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 교육 강화와 다양하고 현실적인 임상 현장 기반 실습 교육을 목적으로 개소했다.

VR을 활용해 간호 술기 실습이 가능한 CPX 룸부터 성인, 여성, 신생아 등의 시뮬레이터와 질 높은 음향 및 영상 시스템을 포함한 디브리링 룸, 그 외에도 조정실, 신생아 중환자실, 분만실까지 다양한 실습이 가능한 강의 시설이 마련돼 있다.

여기에 고화질의 영상 및 음향 녹화가 가능한 심 캡처(Sim-capture) 시스템을 도입해 질 좋은 수업을 보장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센터는 실제 임상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 장비와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구현

함을 통해 간호학과 학생들의 실습 교육 수준을 향상시켰다.

이번 아니라 지역사회 의료 기관과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교육 과정을 공유하며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다양한 현장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교육 과정 개발'을 통해 간호 교육의 질을 높였으며, 졸업 후 임상현장에 적용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졸업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연자 센터장은 "시뮬레이션 교육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앞으로 동서대학교 간호학과가 시뮬레이션 간호 교육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이번 국가고시 전원 합격이라는 영광을 통해 우리 대학이 간호 교육의 선두를 달리고 있음을 증명했다.

간호학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맞춤형 학습과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수한 간호계의 리더를 키워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규리 기자
Orlarbfi1@gmail.com

■ 학부장 인터뷰 -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계열 학부장 오중서 교수

실무에 강한 학생들을 만든다



오중서 교수

Q. 학과의 진로와 전망은 어떤가요?
A. 방송영상학과와 영상방송학과는 영상 제작사, 프로듀서 쪽으로 많이 취업하고 있고, 광고홍보학과는 경우 광고회사나 기업 안의 광고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실에 취업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학과 학생들은 교내 현장 실습으로 이미 회사의 시스템을 충분히 익혔기 때문에 전공 분야가 아닌 비전공 분야에도 많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Q. 레드닷 어워드와 같은 세계 3대 국제광고제와 국내 공모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A. 이러한 성과도 IFS 전과 후로 나올 수 있습니다. IFS 도입 전에는 교수들이 권유해서 학생들이 수동적인 태도로 참여했지만, IFS 도입 후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공모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연간 70~100개의 공모전에 지원하고, 40~50건 정도 입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관련 학과를 비교해도 방송과 광고홍보 학과의 실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Q.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계열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계열은 방송영상학과 광고홍보학과 두 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재학생 수는 400명 가까이 되는 큰 규모의 학과입니다. 큰 규모의 학과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을 관리해야 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계열은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Q. 다른 학과와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A. 저희 학과의 경우 산업계 관련 대학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소개에서 언급한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시스템이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대학하고 차별화시켜 대학 내 IFS라는 교내 현장 체험 시스템인 미디어 아웃렛을 운영해 방송영상콘텐츠의 기획, 제작 등 전 과정의 현장 업무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봄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직무 능력 향상 및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고, 산업계에는 즉시 전력감으로 투입 가능한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Q. 레드닷 어워드와 같은 세계 3대 국제광고제와 국내 공모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A. 이러한 성과도 IFS 전과 후로 나올 수 있습니다. IFS 도입 전에는 교수들이 권유해서 학생들이 수동적인 태도로 참여했지만, IFS 도입 후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공모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연간 70~100개의 공모전에 지원하고, 40~50건 정도 입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관련 학과를 비교해도 방송과 광고홍보 학과의 실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Q. 방송이나 광고 분야는 취업할 때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학과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A.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공모전에 참여하여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집니다. 최근 면접에서 포트폴리오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보여 줄 수 있는 식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므로 학과에선 QR코드를 활용해 작품집을 볼 수 있게 하거나, 인터넷 방송국 모카를 이용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요즘 많은 매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김에 따라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고 올바른 미디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쪽 분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바른 미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 미래의 학생들이 이 학과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태연 수습기자

나의 첫 자기소개서!

스펙업데이에서 배우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스펙업데이 배너

우리 대학 일자리센터에서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스펙업데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펙업데이에서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 교육한다.

우리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뿐만 아니라 타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특강을 들을 수 있으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자기소개서를 한번도 작성해 보지 않은 사람이나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싶은 사람에게 좋은 강의가 될 것이다.

세부적인 교육 내용으로는 ▲기본 문항 작성 방법 ▲경험 사례 정리하기 ▲자기소개서 작성 전 고려 사항 ▲직무 분석 및 기업 분석하기 ▲인사 지원서 작성 요령이 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3시에 진행되며, 신청은 교육이 있는 주의 월요일까지 가능하니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한다.

동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어플(I'm READY DSU)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어플에 들어가 운영 프로그램-프로그램별 소개 및 신청-수요일은 스펙업데이-프로그램 선

정하기를 누르면 된다.

I'M READY 어플에 들어가면 스펙업데이뿐만 아니라 공모전, 서포터즈와 같은 모집 공고부터 시작해서 취업 관련 특강, 채용 설명회 참가자 모집 등을 알려 주는 공지사항, 취업과 직결적으로 연결된 채용 공고, 각종 이벤트,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보기 쉽게 정리돼 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고용노동부, 대학, 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협력해 재학생, 졸업생, 타 대학생, 인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취업,

창업 지원 기능 간 연계를 강화하고 원스톱 고용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편, 우리 대학은 I'M READY(Infra, Manpower, Relevance, Exploration, Aility, Development, Yes) 시스템을 활용해 체계적이며 단계적인 원스톱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 결과 청년드림 대학 선정 및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우수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김규리 기자
Orlarbfi1@gmail.com

창업 활성화 협약 체결!

토탈소프트뱅크와의 업무 협약 체결



▶업무 협약 체결식

우리 대학이 지난달 3일, 토탈소프트뱅크와 창업 지원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유망 스타트업 공동 발굴 협력 ▲유망 스타트업 투자 지원 협력 ▲Accelerating(초기 기업 지원) 분야 협력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된 사항 등에 공동의 뜻을 모아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우리 대학은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토탈소프트뱅크는 유망 스타트업 투자 지원과 초기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ccelerating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들은 우리 대학 외에도 한국해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등의 부산에 위치한 대학과 협약을 맺었다.

토탈소프트뱅크는 부산에 본사를 둔 코스타다 상장사다. 항만·물류 분야 사물인터넷(IoT) 등 전문 기업으로, 해운, 항만 분야에서 물류에 관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시스템, 선박 화물 최적화 운영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이 있다.

타트업으로 시작해 코스타다 상장까지 한 경향이 있다. 지역 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풍부한 노하우를 통해 지역 산업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문 액셀러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무·유형 자산의 유기적 통합을 통해 지역 및 국가 산업체와 연계해 상호 이익을 증대, 대학의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 기반을 통해 국내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다양한 산학 연계 프로그램과 업무 협약을 통해 창업 기업의 혁신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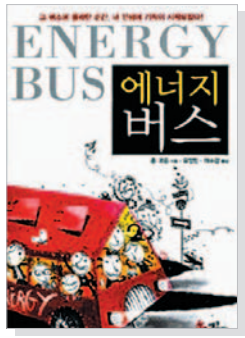
정도는 산학협력단장은 "대학 내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 액셀러레이터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지역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 학생들의 취업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부터 우리 대학 채용박람회, 채용 연계형 중소기업 탐방 과정에 참여하는 등 꾸준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온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도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규리 기자
Orlarbfi1@gmail.com

책 속의 풍경 - 에너지버스

열정이 있는 삶



• 책 제목 : 에너지버스
• 책 저자 : 존 고든
• 출판사 : 쌤앤파커스

이 책을 처음 접한 것은 겨울방학 기간에 근로장학생을 하고 있을 때 주무관님이 추천해 주셔서 읽게 되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인물이 주인공 조지라 평크한 자동차 대신 버스를 타고 출근하게 되고 자신의 운명을 바꿔 줄 버스 운전사인 조이와 만나게 된다. 자신의 인생이라는 버스를 에너지로 가득 채울 10가지 방법을, 회사원 조지와 버스 운전사 조이의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다. # 당신 버스의 운전사는 당신 자신이다

당신의 버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열망', '비전', 그리고 집중이다
집중이 없으면 우리의 에너지는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비전을 적고 매일 10분씩 집중해서 바라보고 거기 적힌 내용을 이루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라. 그러면 생각이라는 자석이 그에 맞는 에너지를 내게 끌어당길 것이다. 간절히 바라지만 말고 목표를 생각하며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힘이 필요하다. # 당신의 버스를 '긍정에너지'라는 연료로 가득 채워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긍정적인 개와 부정적인 개 두 마리가 싸우고 있다. 내가 어느 개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이기는 녀석이 정해진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지만 그 일을 받아들이는 내 태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긍정적인 결과를 원한다면 내 생각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된다. # 당신의 버스에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리고 당신의 비전에 동참시켜라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말해 주고 그곳으로 함께 가자고 말해라. 다른 사람과 비전을 공유하고 그 사람들에게 버스 티켓을 주고 목적지까지 함께 가도록 해라. 그럼 사람들은 너의 버스를 탈 것이다. # 버스에 타지 않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당신의 티켓을 받고 버스에 탄 사람들에게만 에너지를 집중해라. # 당신의 버스에 '에너지 뱀파이어' 탑승 금지' 표지판을 붙여라
에너지 뱀파이어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뜻한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 에너지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없앤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신의 버스에

서 하차시켜라. # 승객들이 당신의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 그들을 매료시킬 열정과 에너지를 뿜어라
심장의 전자기장은 뇌에서 나오는 전자기장보다 5000배나 강력하다. 심장은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다. 누군가가 나를 믿고 달려온다면 그들에게 열정과 에너지를 뿜어내라. # 당신의 승객을 사랑하라
상대를 위해 시간을 내고, 온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의 장점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라. # 목표를 갖고 운전하라
목표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연료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버스에 '연료'를 가득 채운다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 즐겨라
인생은 반복해서 탈 수 있는 놀이 기구가 아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최대한 즐기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삶의 목표는 여행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 목적지를 잃지 마라
기차를 타고 뒤를 돌아보면 굽이 굽이 굽이져 있다. 타고 갈 때는 굽이져서 않고 직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면 굽이져있는 게 인생이다. # 버스에 타지 않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나의 인생을 살면서 옳다고 생각한 것을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틀리는 과정도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 버스에 타지 않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이런 틀림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그것 또한 좋지 않을까? 이 책은 나를 힘 빠지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열정을 알려주는 좋은 책이다. 주태연 수습기자

이달의 영화 - 격돌! 낙서왕국과 얼추 네 명의 용사들

크레용으로 세계를 구하라!



• 영화 제목 : 격돌! 낙서왕국과 얼추 네 명의 용사들
• 영화 감독 : 교고쿠 타카히코

영화 <격돌! 낙서왕국과 얼추 네 명의 용사들>은 크레용 신짱의 28번째 극장판이다. 한국에서는 2021년 9월 15일에 개봉했다. 낙서왕국은 지상의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려내는 낙서를 에너지로 삼아 하늘에 떠있는 왕국이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고 작중에서는 허공에 낙서를 할 수 있는 VR 기술이 개발되면서 굳이 직접 낙서를 그릴 필요가 없어지며 낙서왕국은 붕괴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이에 낙서왕국에서는 강제로 낙서를 그리게 해 왕국을 존속시키는 홀무랄라 그려그려 대작전을 개시한다. 그렇게 왕국 바로 아래에 있던 떡잎마을을 시작으로 지상의 아이들을 잡아가기 시작한다. 또 낙서를 그리지 않겠다고 하는 어른들은 벽의 그림으로 만든다. 낙서왕국의 공주는 이 사태를 막기 위해 지구상에서 단 한 사람, 그러한 것은 무엇이란 실체화시키는 낙서왕국의 보물 '미라를 크레용'으로 세계를 구할 용사

에게 크레용을 전해 달라고 부탁한다. 공정 화가는 공주의 명을 받아 쟁구에게 낙서왕국과 용사, 자유로운 낙서에서 나오는 낙서 에너지에 대해 설명하고, 낙서왕국 병사들을 피해 종이비행기를 접어 쟁구를 탈출시킨다. 한편 첫 번째 동료인 브리프를 그린 다. 브리프는 쟁구를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병사들과 싸우기 위해 전투기, 탱크 등을 그리자고 말하지만 쟁구는 이를 무시하고 두 번째 동료인 이슬이 누나를 그리다. 쟁구는 무심하게 생긴 가짜 이슬이 누나를 피해 도망치지만 가짜 이슬이 누나는 '쟁구가 좋아해'만을 외치며 위기의 순간마다 쟁구를 돕고 구해 준다. 또 도우미 용사를 부르겠다고 세 번째 동료인 부리부리몬을 그린다. 쟁구와 세 명의 용사들은 떡잎마을로 돌아가는 길에서 네 번째 동료로 떡잎마을에 간 엄마를 찾는 유인어를 만난다. 쟁구와 네 명의 용사는 떡잎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어른들을 구해 주느라 크레용을 다 쓰고 만다. 와중에 쟁구는 합창에 넘어가 위기에 처한다. 이를 본 가짜 이슬이 누나는 쟁구를 구하기 위해 비를 맞으며 돌진했고, 결국 비에 녹아버려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 구출된 사람들과 쟁구 일행이 마트에서 나오지만 이미 하늘에서 낙서왕국이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었다. 어른들은 쟁구에게 무기를 만들어 막아달라고 요구하지만 크레용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자 쟁구를 찾았고 비난하기 시작한다. 추락하는 낙서왕국을 피해 떡잎마을을 버리고 떠나는 어른들에게 떡잎마을을 방범대는 스케쳐복과 크레용을 들고 낙서를 해 달라고 외치지만 사람들은 모두 무시하고 도망간다. 그렇게 고생하는 아이들 앞에 떡잎 유치원 선생님이 나타

나 이젠 우리가 할테니 너희는 낙서를 하라며 아이들을 돕는다. 한편 쟁구는 돌움덩이에 녹아 사라지는 부리부리몬과 마지막 인사를 한다. 그리고 뭔가 결심한 듯 근처에 있는 라인기를 들고 달리기를 시작한다. 쟁구가 라인기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다른 사람들, 그리고 도움을 받았으면 값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공주와 유인어의 방송을 듣고 어른들과 함께 있던 아이들 역시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떡잎마을로 돌아와 그림을 그린다. 쟁구가 그린 것은 거대 부리부리몬이었는데, 마지막 남은 동료였던 브리프는 자신이 희생해 그림을 완성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완성된 거대 부리부리몬은 떨어진 낙서왕국을 잡고 다시 하늘 위로 올려 준다. 어른들의 시선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아이들이 해결하고 모두를 구해낸 게 이 영화의 좋은 점이었다. 낙서왕국의 위기도 국방 장군의 폭력적이고 감압적인 방법이 아닌 공주의 희망이, 떡잎마을의 위기도 쟁구와 동네 아이들이, 도망치고 아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만 많은 어른들과 대조되는 아이들의 순수함과 그곳에서 나오는 힘이 돋보였다. 영화는 현대 사회에 대한 회의의 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만, 회의감을 표출하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믿어 주고 함께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아이들이 어른들을 구하듯, 아동 만화도 어른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아동 만화라는 이유로 거르지 말고 감상해 보자. 영화가 끝날 때면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김규리 기자 Orlarbfl1@gmail.com

내 몸은 내가 지키자! 환절기로부터 주의할 점



▶알러지성 비염 > 사진 출처-JW중의재의 홈페이지

벚꽃의 만개함과 동시에 봄을 맞이했다. 두꺼운 패딩은 옷장 속에 넣어두자. 그리고 봄 냄새가 물씬 풍기는 옷을 꺼내자. 다양한 꽃향기와 로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하지만 밤샘해서는 안 된다. 따스한 계절과 함께 불청객이 찾아왔다. 불청객이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고 이들의 증상과 예방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알러지 질환

계절이 변한다는 것은 자연이 변한다는 것이다. 겨울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찾아온 '봄'은 알러지와 손을 잡고 걸어온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벌써 환절기 알러지 고 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알러지 질환이 있고, 증상과 예방 및 치료법을 함께 알아보자.

알러지성 결막염

알러지성 결막염이란, 알러지로 인해 눈이나 눈꺼풀 내면을 둘러싸는 결막에 발생한 염증이다. 세균, 바이러스, 화학제품, 자외선, 먼지, 기생충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감염될 수 있다. 증상으로는 이물감, 눈꺼풀 가려움증, 충혈, 분비물, 눈곱, 눈부

심, 눈물 흘림, 눈 통증, 결막, 눈꺼풀 부종 등이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알러지 원인 물질을 알고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야 하며, 실내 환기를 수시로 해야 한다. 또한 인공 눈물을 사용하고 손을 자주 씻는다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알러지성 비염

알러지성 비염이란, 코 점막이 특정 물질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염증으로, 콧물, 재채기, 급격한 온도 변화, 담배 연기나 매연, 향수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일어난다. 콧물, 코막힘,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발작적인 재채기, 눈과 코 주위의 통증 등이 느껴진다면 의심해볼 수 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청소와 빨래를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피하여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 만약 알러지성 비염에 감염됐을 경우, 병원으로 가서 약물 치료를 받거나 심한 경우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알러지성 천식

알러지성 천식이란, 공기를 흡입할 때 외부 알러지 물질이 함께 들어와서 일으키는 염증으로, 매연, 찬 공기,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가축력, 애완동물 털과 비듬, 벌레 부스레기 입자, 알러지 음식물 등

이 원인으로 꼽힌다. 만약 기침이 멈추지 않거나, 심한 호흡 곤란,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소리가 쌩쌩 거린다면 알러지성 천식을 의심해볼 수 있다. 잊지 말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실내 온도와 습도 조절, 수시로 환기를 시키고 당분간 금주와 금연을 통해 이를 치료하고 예방하자.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이란, 피부에 발생하는 만성 알러지 염증성 질환으로, 유전적, 면역학적, 약학적, 생화학적 유발 요인 등 복합적인 인자에 의해 발생한다. 만약 빨갛게 부어오르는 발진을 발견하거나, 심한 가려움증, 진물 등의 증상이 보인다면 아토피 피부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항상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피부 보습과 저자극성 화장품을 사용하고, 증상을 악화시키는 음식을 피하며 피부에 밀착되는 옷을 피하는 것이 좋다.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니 꼭 병원에 방문하자.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봄에 유난히 심한 황사, 이제는 미세먼지로 인해 하늘이 더욱 뿌옇게 보인다.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따를 수 있으며, 실제로 사망률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미세먼지의 심각성! 음식으로도 대응할 수 없을까?

굴

굴에는 항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굴에는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 해소는 물론 몸 속에 있는 중금속 배출을 돕기도 한다. 타우린이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뇌의 교감신경에 대해 억제작용을 나타내 혈압의 안정화 및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신장의 제갈습 상태에서 심근의 수축력이 저하할 때 수축력을 증가시키고, 고칼슘의 경우 수축력을 감소시켜 부정맥이나 심부전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있다. 이 밖에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등을 유발하는 저밀도 지단백질(LDL)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고, 혈관 조직에 침투

해 있는 콜레스테롤을 분해시키는 고밀도 지단백질(HDL) 콜레스테롤의 양을 증가시켜, 혈관 내 혈소판 응집작용 뿐만 아니라 각종 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있다. 보통 자양강장제나 피로 회복제 등 드링크 제품의 주성분으로 간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되도록 신선한 굴을 먹어 타우린의 효과를 더 잘 느껴보자.

도라지

도라지의 사포닌은 기침, 가래, 염증을 식혀주는 등 기관지 및 호흡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사포닌은 콜레스테롤과 유사한 화학적 구조를 가져,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해하고 배출을 돕기도 한다. 육류 등의 동물성 식품을 장기간 섭취하면 체내에 산화된 지방 덩어리와 비슷한 과산화지질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암으로 암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다. 황사가 발생하면 목 안의 먼지를 씻어내기 위해 삼겹살을 먹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 맛있는 삼겹살도 좋지만, 도라지도 함께 먹여주자. 체지방으로 축적되는 에너지를 줄여주고 비만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니 꼭 잊지 말자. 또한, 갑갑한 목을 빠르게 달래주는 도라지차는 물을 대신하는 차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 도라지차는 하루 3잔 정도가 적당하다.

감염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손씻기다. 코로나19로 인해 손씻기의 중요성은 이미 알고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명심하자. 우리 몸에서 손은 외부의 노출이 가장 많은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손씻기만 잘해도 바이러스 감염을 절반 이상 줄이는 효과가 있다. 비누를 사용해 30초간 꼼꼼히 씻어주자. 우리가 손씻기로 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씻어야 한다.

또한, 환절기 질병이라고 해서 금방 지나갈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증상이 심할 경우, 만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병원에 방문해 꼭 치료를 받자.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조수연 기자 noeyusho@gmail.com

축제·공연 소식



비발디의 사계

• 기 간 : 2022. 4. 6(수)~2022. 5. 6(금)
•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 주 최 : 부산문화회관
• 입장료 : 전석 2만 원



폴리처상을 빛낸 사람들 : 최상훈

• 기 간 : 2022. 4. 9(토)
•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 주 최 : 부산문화회관
• 입장료 : 전석 1만 5천 원



부산의 미래를 향한 신인음악회

• 기 간 : 2022. 4. 15(금)
•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 주 최 : 부산문화회관
• 입장료 : 전석 2만 원



UKO 오케스트라 51회 사랑나눔음악회

• 기 간 : 2022. 4. 20(수)
•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 최 : UKO오케스트라
• 입장료 : 전석 2만 원



전원경의 아트살롱 봄을 맞은 파리

• 기 간 : 2022. 4. 20(수)
•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 주 최 : 부산문화회관
• 입장료 : 전석 1만 2천 원



박승훈 Trumpet & Flugelhorn 독주회

• 기 간 : 2022. 4. 24(일)
•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 주 최 : 음악실험실 재민
• 입장료 : 전석 1만 원 (학생, 예술인패스 5천 원)



테너 윤석 귀국 독창회

• 기 간 : 2022. 4. 26(화)
•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주 최 : SJ엔터테인먼트
• 입장료 : 주최측 문의

식물과 함께하는 공간

Planterior



▶플랜테리어



▶몬스테라



▶스킨답서스

▶사진출처 - 티몬

우리의 공간

우리가 자주 쓰는 공간을 새롭게 바꾸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벽지를 새로 바르거나, 가구의 위치, 조명을 바꾸는 등 기존의 공간에서 조금의 새로움을 추가하면 내가 지내던 공간은 달라진다.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을 만들고 있다. 나만의 작은 홈 카페를 만들거나 취미를 위해 방 하나를 통째로 꾸미는 등 사람들은 공간의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공간의 과부하

유현준 건축가의 '공간의 미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집이 감당해야 하는 용량에서 1.5배 초과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를 복원하고 발코니 면적을 확장한 뒤 층마다 발코니 위치를 달리해 아래

층 햇빛을 차단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새로운 아파트 형태를 만드는 동시에 공간의 과부하로 인한 불편함을 해결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우리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식물을 이용해 보는 게 어떨까?

플랜테리어(Planterior)

플랜테리어는 식물(plant)과 인테리어(interior)의 합성어로, 식물로 실내를 꾸미으로써 공기정화 효과와 심리적 안정 효과를 얻고자 하는 인테리어 방법이다. 플랜테리어는 미세먼지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자연스러운 실내 인테리어를 추구하는 경향과 맞물려 공기정화 효과를 가진 식물들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됐다. 플랜테리어는 그저 식물 화분뿐만 아니라 조화, 식물 포스터 등 식물과 관련된 소품들로 실내 분위기를 생기 있게 연출할 수 있다.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고

관리하기 쉬운 다육식물, 흙 없이 공중에 매달아 키울 수 있는 공중식물, 햇빛이 직접 들어오지 않는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 관엽식물 등 식물을 처음 키우는 사람도 쉽게 키울 수 있으면서 공간의 분위기로 달라지게 할 수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테리어 방법이다.

식물이 주는 이로움

플랜테리어는 생각 이상으로 우리 생활에 활력을 준다. 풀 한 포기 자라지 않은 아스팔트와 빌딩 숲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휴식도 있지만, 자연과 식물도 필요하다. 식물을 키우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을 준다.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우리들은 식물을 키울 때마다 큰 남들의 속도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 식물을 기를 때는 급할 필요가 없다. 남들의 속도를 따라 가려고 이등바름을 일으키고, 처음 세웠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생명을 돌보고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자체에서

기쁨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예상한 만큼 자라지 않거나 죽더라도 퇴비로 만들어 새로운 생명을 위한 토대로 사용할 수 있다. 모든 과정이 긍정적인 시행착오를 거치며 느긋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스스로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식물에 인간의 잣대를 들이밀 수 없지 않은가? 우리가 키우는 식물이 '너는 1년 뒤에 여기까지 자라고, 2년이 되기 전에 꽃을 피워'라고 말해도 식물은 우리의 바람대로 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을 기를 때는 급할 필요 없이 느긋하게 지켜보며 식물은 알아서 성장해갔다. 많은 식물 중에서도 우리가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은 어떤 게 있을까?

플랜테리어 입문용 식물

제일 먼저 추천하는 식물은 '에플린트'다. 에플린트의 특징은 사과+박하 향이 나며, 차 및 식재료, 임유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키우는 장소는 밝은 곳에 두면 된다. 에플린트는 '허브 계의 잡초'라

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잘 자라고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다. 급방 자라기 때문에 아주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다. 두 번째 추천 식물은 '몬스테라'다. 몬스테라의 특징은 찢어지는 잎사귀가 매력적이며, 이들도 몬스터답게 물꽂이를 이용한 삽목이 쉬워 번식이 잘 된다. 키우는 장소는 애플민트와 마찬가지로 밝은 실내와 습기가 많은 곳에 두면 잘 자란다. 몬스테라의 화분에 나무젓가락을 꽂아두고 한 번씩 나무젓가락을 꺼냈을 때 물기가 없으면 그때마다 물을 듬뿍 주면 된다. 뿌리가 있는 줄기를 잘라 수경으로 키울 수 있어서 가장 키우기 쉬운 식물 중에 하나다.

세 번째 추천 식물은 '스킨답서스'다. 스킨답서스는 어두운 실내에서도 잘 자라며, 다른 식물에 비해 빛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일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뛰어나며, 병충해에도 강해 가장 키우기 쉽다. 촉촉해지는 줄기가 매력적이며, 줄기가 길게 자라면 줄기를 잘라 물꽂이로도 키울 수 있다. 너무 잘 자라서 감당 안 될 정도로

키울 수 있다. 마지막 추천 식물은 '디디디아'다. 공중식물의 대표이며, 에어 플랜트로 흙 없이 자라는 식물이다. 주로 코코넛 껍질에 착생하여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공중식물로 키우면 인테리어 효과도 좋다. 물주기를 게을리해도 급방 시들지 않고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이다.

일상공간의 변화

반려동물을 키우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한번 식물을 키워보는 게 어떨까? 일상 속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과 함께 천천히 커가는 식물을 보면서 소소한 기쁨을 느끼며 하루하루 보낸다면 기존의 삶보다 조금 더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자료출처 :
이케아-녹색이 주는 이유로
네이버 블로그-프리지드
주태연 수습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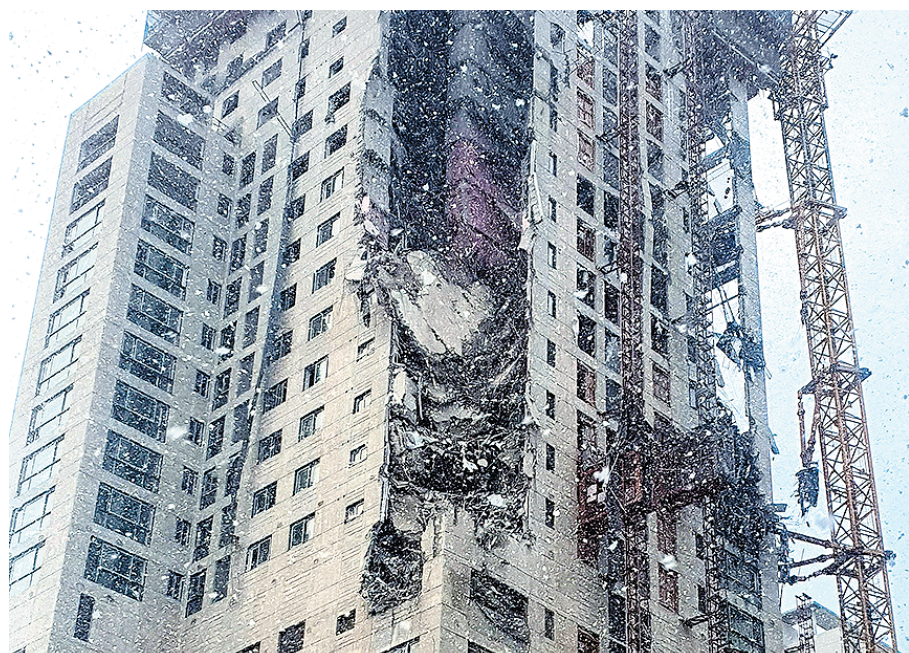
우리 일상의 안전

8번째 봄



▶국민안전의 날 포스터

▶사진출처 - 통계청 블로그



▶아파트 붕괴 현장

▶사진출처 - 중앙일보



▶세월호 참사 추모 메시지

▶사진출처 - TBS 뉴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 행정안전부의 2015~2019년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해마다 30만 명의 사람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다. 교통사고, 등산, 자전거, 추락과 화재 등이 주로 발생하며, 그 외에도 익사나 해양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광주 건물 붕괴 사고, 강원도 산불 등,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우리 주위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경,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서 공사 중이던 아파트의 23~38층의 일부가 붕괴한 사고다. 아파트 붕괴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상층인 39층 바닥 시공 방식의 무단 변경으로 인해 38층과 39층 사이 설비 층 하부에 설치한 가설 지지대의 조기 철거와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을 지목했다.

그리고 시공 방식을 변경하면서 구조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는 등의 부실 감리 역할도 드러났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고층 건물의 경우 최소 3개 층에 가설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서는 이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처럼 가설 지지대가 조기에 철거되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한 38층과 39층 사이 설비 층 바닥에서 1차 붕괴가 일어났고, 아래쪽으로 16개 층이 넘는 아파트 외벽이 연속으로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붕괴가 일어난 17개 층의 콘크리

트 강도를 조사한 결과, 15개 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기준의 8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주위에도 많은 계곡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극소수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생활 속 안전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고를 제외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행정안전부의 가정 내 안전사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2019년에 평균 37,490건이다. 그중에서 10세 미만이 40.9%를 차지했고, 60세 이상이 13.2%를 차지했다. 사고

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어린이와 고령자의 경우, 더욱 안전에 주의하고 예방해야 한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두고 조심한다면 가정 내 사고는 쉽게 예방할 수 있다. 낮은 침대, 모서리가 둥근 가구를 선택하거나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한다면, 크고 작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우리의 일상 속 사고는 예견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점검하고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매달 4일 안전 점검의 날 때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한 달에 한 번 점검하는 습관을 지닌다면 우리 가정 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8번째 봄

최근 건물이 무너지거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했다. 국민 안전의 날의 지정 배경은 산불이나 건물 붕괴가 아닌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지정됐다.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다. 검정합동수사본부는 2014년 10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발표했다. 이 사건이 발생

하고 정부는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지정된 날이다.

2014년 4월 16일에서 어느덧 시간이 흘러 8번째 봄이 왔다. 2022년이 되어서도 전국에서는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연극제, 온라인 공연, 손글씨 작가 전시회, 추모식 등 전국에서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겨울 끝에 봄이 돌아와 생명을 괴워내듯, 어두운 터널을 지나다 보면 항상 밝은 길이 있듯이, 우리족들에게도 행복이 찾아오길 바란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광주아파트붕괴사고
행정안전부-사고발생현황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요령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4-16 세월호 참사
주태연 수습기자



임광산
맑은 소리

매해가 바뀔 때마다, “내가 벌써 N학년이구나!” 하며 놀랐다. 그중 가장 크게 놀란 것은 확실히 이번 해다. 4학년이 됐기 때문이다. 절없는 짓을 해도 학생이라는 이름 아래 용납받던 좋은 시절을 보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 사회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던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날 준비를 하며 지난 대학 생활과 함께 앞으로의 다짐을 글로 남기려 한다.

학교생활에서 코로나 이야기를 빼먹을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몇 없던 내 인생 계획을 많이도 수정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코로나로 외국에 가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 과 특성상 아이디어 회의가 잦았는데, 학교에서 저녁 회의를 하지 못한 것도 슬프다. 카페에 쓴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돌아와서, 가장 다채롭게 힘들었고 동시에 즐거웠던 시기를 떠올려보자면 역시, 3학년 2학기다. 우리 대학 광고홍보 학과의 꽃, IPS가 있는 학기. 힘들기로는 소문이 자자한 수업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바뀌는 방역 수칙으로 회의부터 촬영까지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 이때는 무슨 자신감과 열정이었는지 지적점을 수강하고 있어서, 더 힘들었다. 학교생활 중 처음으로 한계를 맞볼 때, 가장 많이 성장했다고 느낀 때다. 정말이지, 많은 학생이 3학년을 ‘사관년’이라 칭하는 이유를 온몸으로 체감했다. 그래도 부산지방병무청, 부산 아이파크, 정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과 협업하며 우리 팀이 제작한 영상이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4년의 일기

이연주 (광고홍보학과·4)

등에 송출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다. 90살이 되어서 대학 생활이 다 바래도 이 시기만큼은 생생하게 남아있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다.

적다 보니 아쉬운 마음만으로 지난 2년을 보낸 것 같지만, 코로나 시대에서 얻은 것들도 많다. 먼저, 일주일은 고사하고 한 시간 단위의 계획도 세우지 않는 내가 스케줄러를 작성하게 됐다. 이게 뭐 그리 큰 성과라는 건지 바투를 수 있으나, 이 작은 변화로 인해 다양한 일을 조금 더 꼼꼼하게 관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러 일이 들이닥쳐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마감일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이 덕분이다. 미리 하면 될 일을 그러지 않고 마감에 맞춰 하는 것은 여전히 똑같지만, 나름의 큰 성장이다. 또, 온라인 강의 덕에 남는 시간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 다양한 행복을 얻기도 했다. 이런 자잘한 일들이 모여 더 나은 내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4년, 이 글에 적은 것 외에도 많은 일이 있었고, 나름의 고난과 역경을 헤쳐 지금에 이르렀다. 지나고 보니 추억으로 남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나 부사절 듯 아파하고, 고민하며 괴로워했다. 그게 뭐가 그리 힘들었냐며 어이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래도 나에게서 그게 무엇보다 큰 시련이었다.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 이맘때가 되면 명확한 진로를 설정하고 제대로 된 ‘어른’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장기적인 계획 따위 없는 미숙한 사람이라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다.

나는 지난 3년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살았다. 이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왔다. 잘하지는 못했어도 일단 뛰라도 하기는 했다. 그 덕에 모든 아쉬움을 그 자체로 끝낼 수 있다. 물론, 무기력과 혼란에 빠져 잠시라도 삶을 낭비하고 싶지 않겠다는 다짐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건 내 의지에만 달린 일이 아님을 안다. 그런 시절 없는 사람 하나 없다. 자신을 단단히 지키려면 기대하고, 실망하고 충탄해 아파해야 한다. 한계에 부딪히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계속되는 자괴와 자책에 톰부림치는 순간에도,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고 시간은 흘러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라는 질문이 항상 속저처럼 느껴진다.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 문제의 답이 동시에 평생 나를 지킬 기둥이 될 것을 알기에 계속해서 고민한다. 미래에 같은 고민을 또 할 것과 마음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놓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지금은 그저 최선을 다해 모든 순간을 느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마지막으로, 미래에도 여전히 유지하고 많이 울 것을 알지만, 내 행복과 안녕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만은 잊지 않을 것이다. 결과가 아쉬워도 그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미래를 두려워하면서도, 벌써 사랑하고 있다.

죽비소리

언제나 안전한 길은 없다

김태연 (광고홍보학과·4)

어는 누구에게나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다. 그 길을 순탄하고 안전하게 걷고 싶지만 자신을 위해 낯설고 불확실한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

나 또한 그렇다. 휴학을 포함해 우리 대학교에 입학한 지도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내 인생에 있어 4년이라는 시간은 안전의 길일에서 고심하고 고민한 성장의 시기라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도 그런 시기다. 학장시절 단지 배우기만을 했었고, 운동에 자신이 있다는 생각만으로 체육관련 학과에 입학하고 싶었다.

하지만 막바지에 진로를 바꾸고, 광고홍보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과연, 내가 광고홍보학과에 가서 잘 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막상 입학하고 나니, 막대한 일도 따지기 일쑤였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 학교생활에 임하면서 스스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생각했다.

일단, 볼 능력을 향상시키자는 마음으로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렇게 향상시킨 능력을 바탕으로 시에서 진행하는 일거리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가해 실무 능력을 쌓고자 했다.

지원할 때의 목표는 키워온 역량이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배우며, 최대한 많은 업무에 참여해 디자인적 실무를 경험하는 것이었다. 출근 후에 팀에 배속됐지만, 디자인 업무 지시는 받지 못한 채 제품을 포장하는 지속적인 업무 상황만 이어졌다. 그렇기에 직접 역량을 보여드리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퇴근 후, 타깃별 제품의 패턴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이후 기업체의 실감나게 직접 보여드리며 디자인 업무를 진행하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장바구니 패턴을 디자인하는 업무를 배정받아 처리할 수 있었다. 업무수행에 있어 도전정신은 있더라도 적극적인 태도와 책임감이 없다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음을 배웠다.

길었던 방학이 끝나고 묵묵히 학교생활만 임하던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다. 그 목표를 확실히 정하지는 못했지만, 미래를 위해 우선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빨리 만들어서 소통하며 피드백을 해주던 스터디 멤버들이 있었기에 프로젝트를 잘 마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완성한 포트폴리오를 구직 사이트에도 올리려고, 취업 준비 시기에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준비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4학년에 올라가기 전, 방송국 협력 업체에서 연력이 와 지원 의향을 물어보셨다.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생

기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지원 했고, 고된 끝에 1년의 계약에 따라 방송국 보도 CG 요원으로 일하게 됐다. 순탄한 길만 있을 줄 알았던 회사생활도 쉽지않은 양였다. 근무 당시, 뉴스 자막 송출 도중 컴퓨터의 과부하로 인해 자막 사고가 났다. 자막이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큰 사고였다. 미리 백업해놓은 컴퓨터로 빠르게 넘어가서 자막 송출을 준비하였으나, PD님과 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없었다. 총 2개의 실수를 범했고, 짧은 뉴스일자리도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던 나는 스스로 성장의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뉴스가 끝난 직후, 왜 사고가 났는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까지 천천히 정리했다. 이에 컴퓨터 고장에 대한 신호 명령을 확실히 하고자 했으며, 컴퓨터 내부의 과일들을 분류해 정리하기 시작했다.

또한 사고 일지를 만들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끔 정리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사고일지에 정리한 사항을 토대로 부서 팀원들과 함께 주기적인 회의와 사고 대비 예방연습 시간을 가졌다. 안전하고 순탄한 길만 있을 줄 알았던 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떠한 길이란 쉬운 길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길고 길던 1년의 회사생활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와 현재는 열심히 학교생활에 임하고 있다. 안전한 길이 전해주는 편안한 장점이 있었지만, 때로는 낯설고 협력 업체에서 연력이 와 지원 의향을 물어보셨다.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생

이달의 명언

건강과 명당은
서로가 서로를 낳는다
—조셉 애디슨

강한 신체는
정신육 강화에 맞선다
—토머스 제퍼슨

건강한 육은 정신의 전당이고,
병든 육은 감옥이다.
—프랜시스 베이컨

사설

안전을 위협하는 美

과거 우리의 일상 곳곳에 장애인 배리어 시설이 있었다. 어릴 적 신호등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안내선이 돼 주었던 노란색의 점자 보도블록과 신호등에 붙어있는 음향신호기를 부르며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 당시, ‘장애인 배리어시설’이라는 개념이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위한 시설이었는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장애인 배리어시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비장애인에게도 무심코 지나치거나 미관을 해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장애인 배리어시설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비장애인의 무심함으로 인해 장애인 배리어시설이 오히려 불편함을 주는 엉터리 시설이 되고 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노란색의 점자 보도블록은 왜 하필 노란색일까?’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그저 도시 미

관을 위해 도로와 어울리는 색으로 칠한 듯한 점자 보도블록이 종종 보인다.

시각장애인은 장애등급에 따라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전맹과 저시력으로 나뉜다. 시각장애인들이 가운데 완전 시각장애인은 전체의 20%이다. 이들은 빛과 색깔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물을 판별할 수 있다. 점자블록이 노란색이면 이들의 눈에 색이 반사돼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노란색 점자블록은 도로의 상황을 알리고 방향을 제시하며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데 필요한 시설물이다.

하지만, 노란색이 아닌 보도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이게는 옹덩이로 보여 그 위로 걸지 않고 피하게 된다. 과거부터 제기됐던 문제지만, 아직도 제자리걸음 중이다.

계다가 점자 보도블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길가에 있는 점자 블록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앞으로 직진하려는 의미의 직진 방향 점자

블록과 정지하려는 의미의 동그란 무늬가 새겨진 정지 블록이다. 이 블록들이 시공할 때 제대로 맞추지 않아 거꾸로 끼워져 있을 때도 있고, 오랜 시간 동안 관리되지 않아 부서져 있기도 하다. 우리도 부서진 도로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보도블록에만 의존하며 걸어야 하는 시각장애인에게 불편함을 넘어 위협으로 느껴질 것이다. 특히, 건물목 앞에 잘못된 보도블록이 놓여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엘리베이터도 문제가 있다. 버튼 옆에 점자 표시가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이다. 그러나 층별 안내 음성이 없으면 가고 싶은 층을 몰랐다고 해도 어디서 내려야 할지 알 수 없다.

계단 옆의 경사로도 마찬가지이다. 규모가 큰 대형건물에는 대부분 경사로가 조성돼 있고, 동네 주변의 편의점, 카페, 식당 등의 접근로 또한 조성돼 있지만,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휠체어를

배려해서 경사로는 평평해도,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하며, 손잡이가 없거나 근처에 울퉁불퉁한 턱이 놓여있기도 하다. 또한, 좁은 건물목에는 신호등의 색과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음향신호가 없는 경우가 많다.

시공 규정을 따르는 데에만 급급해 장애인을 위한 ‘진짜 배려’가 빠진 시설들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장애인의 기본권 자체가 침해받고 있다. 장애인은 자립능력평가를 수행해 일할 수 있음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 미달하면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

2019년에 발표된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현황에 따르면, 7천800여 명의 장애인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했다고 한다.

이런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새로운 실험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퀵리움’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전라남도, 충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4개 지자체에 600여 명이 고용돼 있다.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공공부문이 원래 수행해야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의 수행을 장애인이 통해 어떠한 정책효과를 높이고 최저임금 기반의 일자리도 확보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569곳이 표준사업장 인증을 인증받았다. 장애인을 10명 이상 고용하고, 고용한 장애인이 상시근로자 가운데 30% 이상을 차지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가운데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아름다움도 중요하다.

네 컷 만화

안전



안전과 도전을 균형 있게 잘 잡을 수 있는 동서인이 되길 바라면서... 오는 4월도 힘문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목회칼럼



황정환 목회

효율성과 이익에서 생명으로

처럼 말이다. 그래서 법률 등 많은 제도를 만들지만, 소용이 없을 때가 많다. 이제는 여러 가지 제도, 효율성과 이익보다 먼저 생명을 중시하는 풍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소외되지 않고 기다림이다

미리암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을 얻게 된다. (민수기 12장) 미리암은 진영 밖에서 이레(한 주) 동안 갈려 있게 될 때, 백성은 그가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을 멈추고 기다린다. 힘들고 고난의 연속인 광야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이스라엘은 소외된 미리암을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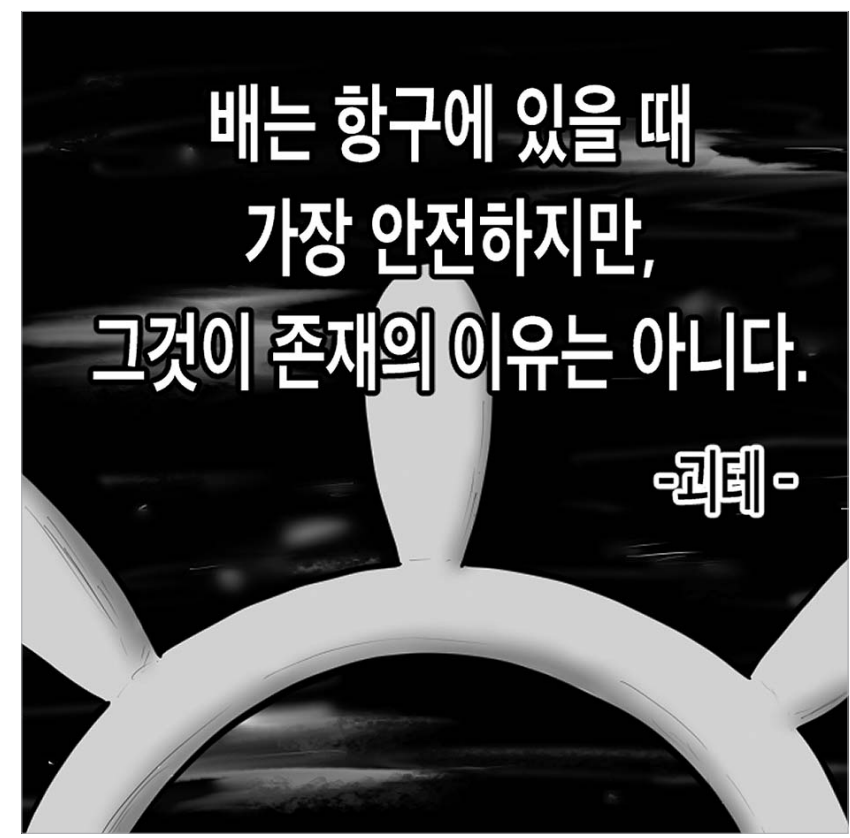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까지도 소외되지 않고 다 함께 가려고 하는 백성들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울림을 준다. 숲 쉬고 살아가는 생명에게 울며, 소외는 얼마나 큰 상처이고 아픈 인가!

생명을 중시하자
최근에 일어난 광주 아파트 붕괴사건

이익을 위해서라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시대에 아모스

동서만평

글·그림 정희진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존재의 이유는 아니다.

퀵리움

■ 학생 인터뷰 - 제29대 총학생회 회장 김흥규 학생

제29대 '바람' 총학생회를 되돌아보다!

제29대 총학생회장 김흥규 학생



▶ 제29대 총학생회 슬로건



▶ 29대 바람 총학생회

새로운 총학생회 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대학을 위해 항상 뒤에서 힘써준 학생들이 있다. 제29대 바람 총학생회 회장을 맡은 김흥규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동서대학교 제29대 '바람' 총학생회에서 회장을 맡았던 15학번 김흥규입니다.

Q. 제29대 총학생회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A. 2학년 때, 학회장을 맡으면서 여러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총학생회국장을 하면서 추억을 많이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 때, 제29대 총학생회 회장이 되어, 조금 더 나은 학교를 만들고 많은 학생과 소통하고 싶어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Q. 제29대 총학생회로 활동하며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었나요?

A. 총학생회를 시작하면서 워낙 열심히 하자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 어렵거나 힘든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상황은 있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저희가 하고 싶었던 행사를 못 했다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물론 E-스포츠나 중간고사, 기말고

사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행사를 아예 못 한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바라는 행사인 축제나 체육대회처럼 큰 규모의 행사를 치르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Q. 반대로 제29대 총학생회로 활동하며 즐거웠거나 좋았던 일이 있었나요?

A. 가장 좋았던 일은 학생들이 E-스포츠를 하면서 서로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게임에 임하다 보니 게임을 '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 모두 즐겁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안에서 국장들과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웃으면서 저를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덕분에 행사를 진행하면서 한 번도 웃음을 잃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 생활에 있어서 꼭 가져야 할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단체 생활'이라는 문화를 2021년, 저희가 진행했던 행사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다양한 학생들과 교류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모습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업으로 받는 역할에서 벗어나 잠재된 환경을 환기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Q. 지난달에 이루어진 제30대 총학생회 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제30대 총학생회 선거는 다소 늦은 시기에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선거를 진행했다면, 동계방학 때 학생회 활동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개강과 동시에 학생회 활동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강 이후에 선거가 진행되다 보니, 선거가 마무리되자마자 바로 행사나 학생회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점이 힘들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제30대 학생회로 활동하는 학생들은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 제30대 총학생회 학생들에게 조언이나 격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작년 제29대 '바람' 총학생회를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체육대회, 축제처럼 큰 행사를 치르지 못하고 학생회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에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번 제30대 학생회에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축제나 체육대회처럼 대규모 행사를 진행해서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학생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과 교감을 통해 더욱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학생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부담되는 만큼 더욱 책임감 있게 학생회를 이끌어가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학교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재밌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더욱 많은 경험과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혜미 기자 qpfhszlk1542@gmail.com

■ 인터뷰 - 유미옥 환경 미화 팀장

환경 미화 팀장님과의 만남

힘들어보람찬 매일



▶ 카페 아미에서의 만남



의식하지 않으면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해도 늘 뒤에서 힘써주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깨끗하고 쾌적한 캠퍼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 역시 뒤에서 청소해 주는 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책임져 주시는 환경 미화 팀장님을 학교 밖 카페에서 만났다.

Q.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1999년 7월 6일 관리과 미화부로 입사해 지금은 협력 업체인 ㈜함양 기업 환경 미화 팀장을 맡고 있는 유미옥입니다. 남과 같으면 남 이상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항상 인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Q.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학교 미화란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공간, 즉 강의실, 복도, 화장실 쓰레기를 분리배출한 후 쓸고 닦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매일 반복하고 있어요.

Q. 이 일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의 인식이 좋지 않은데요. 적은 보수, 남들이 기피하는 직업, 나이 드신 분들의 상징적인 직업,

최후의 단순 노동직이라는 선입견. 하지만 당시 저에게는 두 아들을 키울 수 있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전부 괜찮았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30대 후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에 뛰어들게 됐네요.

Q.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힘든 일은 화장실 변기통에 불필요한 이물질을 투입해 물이 역류하면서 벌어지는 청소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담배꽂초, 가래집을 하나하나 치우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에요. 디자인관, 공학관 등의 경우 졸업 후 덩치 크고 무거운 쓰레기가 자주 나오고, 페인트나 스프레이 작업으로 인해 복도 잔해물 지우기가 꽤 힘들 겁니다. 손가락 마디마디 관절, 무릎 관절 등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직업이라 참으로 힘들죠.

Q. 어떤 때 재미나 보람을 느끼시나요?

A. 힘든 일이 많긴 하지만 보람을 느껴요. 코로나 없던 시절 축제, 체육대회가 있는 날은 열심히 일하면서 같이 즐겁습니다. 코로나19 초반 구하기 힘들던 마스크와 소독제 챙겨 주신 것, 교직원들이 챙겨 주는 여름 삼계탕, 복도에서 만나면 '수고하십니다' 밝게 인사하는 학생들, 무거운 쓰레기 치울 때 도와주는 학생들에게 고마움과 보람을 느껴요. 지하철 같은 곳에서 한다면 느낄 수 없는 젊음, 열정, 지식, 사계절의 변화, 비록 다른 신분, 다른 역할이지만 같은 환경을 누리며

매움을 느낍니다. 대학생인 것처럼 작각만 당시 저에게는 두 아들을 키울 수 있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전부 괜찮았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30대 후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에 뛰어들게 됐네요.

Q. 학교에서 있었던 일 중 기억에 남는 일 또는 학생이 있나요?

A. 대학이라는 곳에서 미화 일을 하다 보니 많은 학생들과 마주치고 대화합니다.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남학생이 있습니다. 약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흥미는 없지만 성적 때문에 신소재학과에 입학해 학교에 다니다며,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공부는 하기 싫으니 자퇴하고 돈을 빌렸다는 학생을 끌려서 설득해 출석만 해 졸업장 하나만 받고 사회로 진출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학생은 공장장까지 하며 가장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있어요. 그때 끝까지 이야기 들어 주고 설득해 줬서 감사하다며 가끔 박카스 들고 인사하러 오는 그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학교 혹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A. 젊음 자체가 멋있는 학생 여러분, 공부 좀 하면서 어떨습니까. 인성, 부지런함, 성실함 등 다른 부분에서 점수 채워 100점 주변 되죠. 독서도 하고, 놀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성장하십시오. 동서대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시작해 더 큰 세계로 나아가십시오.

김규리 기자 Orlarbf1@gmail.com

성경 속 음식이야기



▶ 엠마오에서의 저녁식사

▶ 사진 출처 - 다음블로그

미식의 시대

텔레비전을 틀면 어느 맛집을 소개한다. SNS에서는 자기가 갔던 맛집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어떤 요리를 먹었고 어떤 부분이 맛있었다. 내가 여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SNS에서 한다. 우리는 이런 미식의 시대, 탐식의 시대, 과식의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가 여러 음식을 먹고 미식을 즐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예서의 이야기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아담 형제의 운명을 가른 '팔죽 한 그릇'
'아담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여

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아담에게 판지라(창 25:33)', '아담이 떡과 팔죽을 아담에게 주매 아담이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아담이 장자의 명분을 철저히 여겼었다(창 25:34)'에서는 팔죽 한 그릇에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는 아브라함 집안의 장자의 특권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주는 떡과 팔죽을 위해 하나님의 양심을 팔아먹는 것은 저지르면 안 된다.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기는 예서의 일화가 있듯이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아디아포라(Adiaphora)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는 '도덕이 행하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지한 것도 아닌 것'이란 뜻이다. 기독교인들에게 음식은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누가 이런 선택을 했다고 비난하거나 누가 저런 선택을 했다고 정죄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음식에 관한 것이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먹방(먹는 방송), 몸,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다이어트 음식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시대에 음식이란 것을 성경과 신앙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음식

성경에서 음식은 매우 복잡적이고, 층위가 복잡한 이야기가 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빵이 되라고 말해보라. (마태복음 4:3)'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태복음 4:4)' 하였다. 마태복음 4:4에서 시험하는 자에게 말하는 예수님의 대답은 음식의 중요성을 조금 낮추었다. 그런데 이후 성만찬 제정하실 때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때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내 피이다. (마태

복음 26:26)',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마태복음 26:27-28)', 그리고 요한복음 6:48에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하셨다. 이렇게 음식으로 자신을 스스로 은유하시기도 하셨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음식을 낮추기도 하고 자신을 빚어 높이기도 한다. 그중에서 예수님께서 금지한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금지한 음식 이야기

살아있는 동물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허용하셨지만, 그것에는 윤리와 규정이 있다.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창세기 9:4-5)' 피가 있는 채로, 피를 흘리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동물을 그저 자신의 음식으로만 생각하고 그것들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 상관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허용하셨지만, 우리에게 허용된 것은 아니다.

성경 밖의 이야기

고대인들에게 피를 빼는 작업, 즉 피를 말리는 작업은 피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빼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생명을 돌려보내는 의미이다. 이 문화는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했지만, 유목민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화다. 몽골 유목민들은 양을 잡으면 나오는 양의 피를 일부 떼서 양을 음식으로 삼기

전에 먼저 하늘로 던지면서 신에게 감사를 표현한다. 감사를 표하는 이유는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통해 유목민이 식사를 하게 되어, 신에게 신고하는 동시에 동물에게도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유목민의 이야기는 비록 성경 밖에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어떤 살아있는 생명을 희생할 때 깨끗하게 살과 내장에 있는 피를 탐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의를 갖추는 것이다.

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음식이 되는 생명체의 생명과 희생을 생각하라는 게 음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음식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의해야 할 여러 사안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금기와 아주 강한 금기는 바로 음식과 연결돼 있다.

금기와 연결된 음식 이야기

인류의 타락 이야기를 하는 선악과 사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류의 타락이 무엇을 먹은 것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다. 예수님의 음식에서 이야기 한 사람의 시험에서도 먹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교회 역사 전반을 보면 이렇게 먹는 것과 관련된 금기 혹은 주의 그리고 강력한 경고가 교회 역사 내내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중세시대 내내 칠죄종(七罪宗)이 있는데 칠죄종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곱 가지 거대한 죄악을 말한다. 칠죄종에는 교만, 인색, 시기(질투), 분노, 음욕, 탐욕(탐식), 나태 등이 있는데 7가지 죄악에서 탐식이 들어간다. 예로부터 금기와 아주 강한 금기는 음식과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금기와 더불어 음식을 만들 때 금지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유와 고기

성경에서는 우유와 고기를 한꺼번에 조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은 성경에 세 차례 등장한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살지 말지니라. (출 23:19, 34:26, 신 14:21)' 이러한 지시에 대한 해석은 지금껏 의견이 분분하다. 생명을 주는 것(우유)과 생명이 없는 것(고기)을 함께 섞는 것은 잘못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고, 요즘에는 대개 '염소 새끼'를 육류, '어미젖'은 유제품, 그리고 '살지 말라'는 먹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즉, 부모와 자식 사이로 여겨지는 음식을 한꺼번에 먹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것이다. 물론, 우유와 고기의 조리법에도 약간의 예외는 존재했다. 조류의 고기와 우유, 생선이나 메뚜기도 고기와 우유 금지 조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식자재들은 언제든지 우유나 고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현대 시대

우리는 미식, 탐식 그리고 과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풍요의 시대에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되 '우리에겐 일용할 배고픔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 풍요의 시대에 맞는 기도인 것 같다.

자료 출처 : 책 - 맛있는 성경이야기
네이버 지식백과 - 칠죄종
주태연 수습기자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2022 부산중구 꿈드림 멘토단 모집공고
부산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 멘토단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 및 멘토링을 위한 멘토를 모집합니다.

01 모집요강
02 신청기간: 2022.03.29(수) ~ 2022.04.08(금)
03 신청방법: 부산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www.bsmc.or.kr) 또는 전화 신청
04 멘토단: 10명 이내, 1인 1명 신청 가능
05 활동기간: 2022.04.10(일) ~ 2022.05.07(토)
06 활동장소: 부산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 멘토링 센터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0-1)
07 활동내용: 학습지원, 멘토링, 상담, 동아리 활동 등
08 지원자격: 19년 12월 31일 현재 만 20세 이상, 25세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사회인
09 활동비: 월 10만원 (월 1회 지급) + 교통비 지원
10 문의처: 부산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 멘토링 센터 (051-246-1388)

■ 2022 부산중구꿈드림 중·고졸 검정고시 교과목 학습지도 멘토 모집
• 접수기간: ~2022.04.10(일)
• 응모대상: 일반인, 대학생, 기타
• 공모분야: 대외활동/서포터즈

BR NEXT ICECREAM CREATORS
당신이 바로 상급 1천만원의 주인공입니다!
기간: 03.25(목) ~ 04.10(일)

상급 1천만원의 주인공이 되세요!
3.24(목)~4.10(일)까지
Korea's Best Ice Cream Contest

■ 2022 배스킨라비스 아이스크림 콘테스트
• 접수기간: ~2022.04.10(일)
• 응모대상: 제한없음
• 공모분야: 예체능/미술/음악

독도를 알릴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2022.04.01(수) ~ 04.14(목)
접수기간: 2022.04.14(목)까지
Korea's Best Ice Cream Contest

■ 독도재단 2022년 독도동아리 활동 모집
• 접수기간: ~2022.04.14(목)
• 응모대상: 대학생
• 공모분야: 대외활동/서포터즈

모티바 10월 글짓기 공모전
"100년과 100년의 아들로
이름 불소속자의
생애가 기록됩니다."

접수기간: 2022.04.15(금)
응모대상: 일반인, 대학생, 기타
공모분야: 글짓기

■ 모티바 10월 글짓기 공모전
• 접수기간: ~2022.04.15(금)
• 응모대상: 일반인, 대학생, 기타
• 공모분야: 글짓기

장애인의 날 작품 공모전
공모기간: 2022.03.28(수) ~ 04.15(금)
접수기간: 2022.04.20(화)
공모분야: 글짓기, 만화, 사진, 영상, 음악, 미술

■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22 장애인의 날 작품 공모전
• 접수기간: ~2022.04.15(금)
• 응모대상: 제한없음
• 공모분야: 디자인/캐릭터/웹툰, 예체능/미술/음악, 시나리오

창간 22주년 이데일리 사진 공모전
With 할리스
접수기간: 2022.04.15(금)
응모대상: 제한없음
공모분야: 사진

■ 창간 22주년 이데일리 사진공모전 with 할리스
• 접수기간: ~2022.04.15(금)
• 응모대상: 제한없음
• 공모분야: 영상/UCC/사진

제2기 온라인 기자단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모집기간: 2022.03.24(목) ~ 4/15(금)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제2기 온라인 기자단 모집
• 접수기간: ~2022.04.15(금)
• 응모대상: 제한없음
• 공모분야: 대외활동/서포터즈

대원웹툰&웹소설 ACADEMY
모집기간: 2022.03.25 ~ 2022.04.17

■ 대원 웹툰&웹소설 ACADEMY
• 접수기간: ~2022.04.17(일)
• 응모대상: 제한없음
• 공모분야: 디자인/캐릭터/웹툰

대국민을 빅데이터 공모전
모집기간: 2022.04.21(목)

■ 2022년 대국민을 빅데이터 공모전
• 접수기간: ~2022.04.21(목)
• 응모대상: 일반인, 대학생
• 공모분야: 기획/아이디어, 웹/모바일/IT, 취업/창업

균형발전 콘텐츠 큐레이터 모집
접수기간: 2022.04.22(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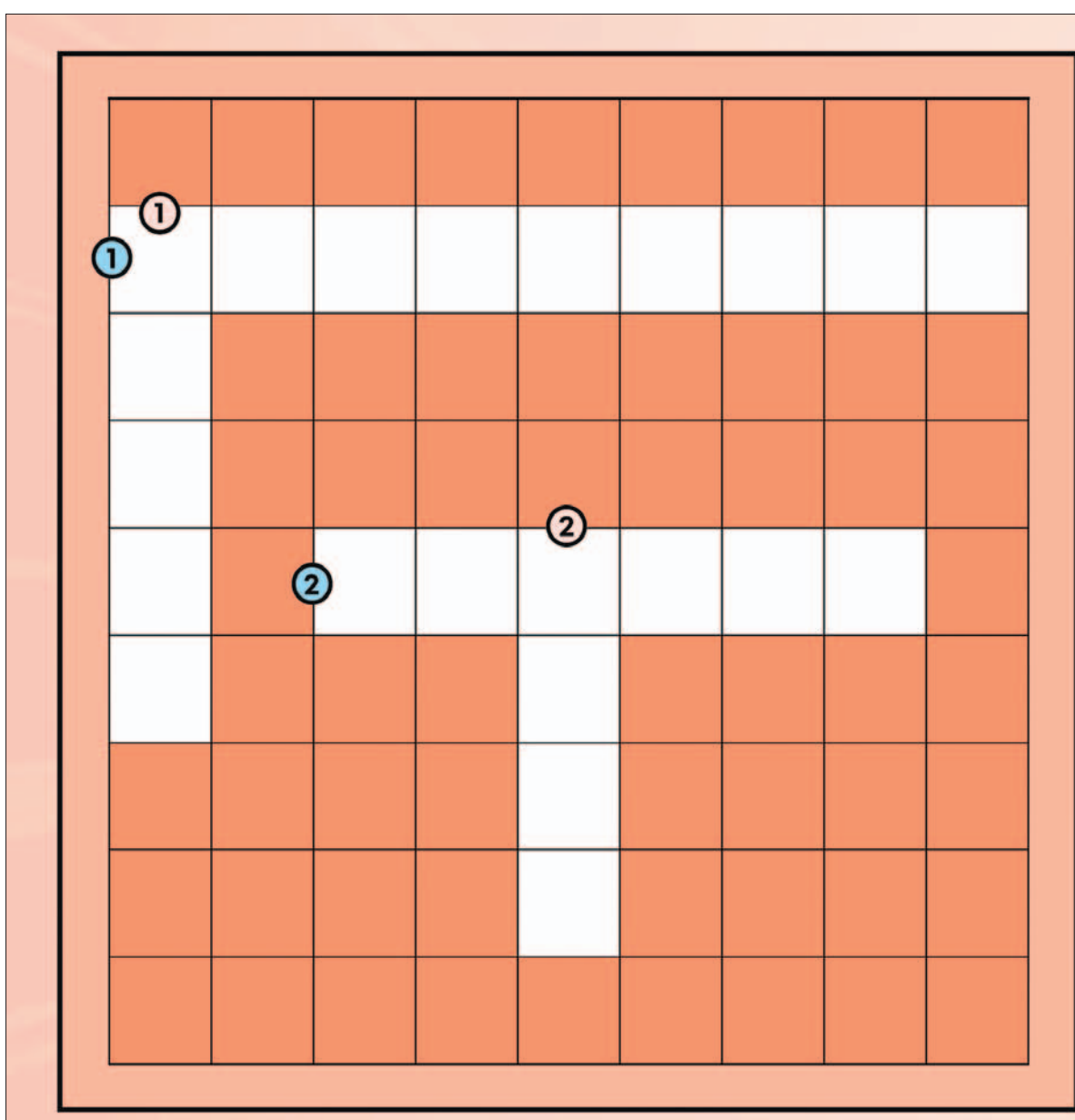
■ 2022 균형발전 콘텐츠 큐레이터 모집
• 접수기간: ~2022.04.22(금)
• 응모대상: 일반인, 대학생
• 공모분야: 대외활동/서포터즈

Korea Star Awards 2022 대학민국 패키징 대전
접수기간: 2022.04.22(금)

■ 2022 대한민국 대학생 패키징 공모전
• 접수기간: ~2022.04.22(금)
• 응모대상: 대학생
• 공모분야: 광고/마케팅, 디자인/캐릭터

삼성전자 생태계 공모전
접수기간: 2022.03.25 ~ 2022.04.30

■ 삼성전자 생태계 공모전
• 접수기간: ~2022.04.30(토)
• 응모대상: 대학생
• 공모분야: 영상/UCC/사진, 예체능/미술/음악



- QUIZ -

맞춰봐요

날말퍼즐

가르

- ① 크림전쟁 중 병원을 맡아 의료 환경을 깨끗하게 바꾸려는 노력으로 부상자 사망률을 낮췄다. 의료 체계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으며, 간호학교를 만들어 간호교육의 기초를 세운 영국의 간호사.
- ②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려는 의미로 2015년 제정된 날

세로

- ① 자연친화적이면서 내수활황이 꾸준한 관심사인 요즘, 곳곳에 소품으로 식물이나 화분으로 포인트를 주는 인테리어
- ② 자동차나 비행기 등의 사고에서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장치

참여방법

- ① 날말퍼즐을 잘라 산학협력관 대강당 입구에 있는 신문사 건의함에 넣어주세요
- ② 정답이 잘 보이게 사진을 찍어 아래의 번호로 보내주세요
편집국장: 010-4915-8702

4월 29일까지 퍼즐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당첨자는 4월 30일에 개별 통보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 학 과:
* 학 년:
* 이 름:
* 연락처: